

# 중국, 첫 화성탐사선 '텐원 1호' 발사

기사입력 2020-07-23 13:58 최종수정 2020-07-23 14:45

중국이 첫 화성탐사선 '텐원 1호'를 발사했다.

23일 중국 신화통신, CCTV 등 관영매체는 중국 국가항천국이 낮 12시 41분(현지시간) 하이난(海南) 원창 우주발사장에서 첫 화성탐사선 텐원(天問)-1호를 창정(長征) 5호 로켓에 실어 쏘아 올렸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우주발사체가 화성으로 우주선을 보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2011년 화성탐사선 '잉훤 1호'를 러시아 화성탐사선과 함께 러시아 소유스 로켓에 실어 발사했으나 지구 궤도를 벗어 나지 못하면서 실패한 바 있다.



중국의 첫 화성 탐사선 텐원(天問)-1호를 운반할 창정(長征)-5 Y4 로켓이 23일 하이난성의 원창 우주발사장 발사대를 이륙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텐원 1호는 궤도선, 착륙선, 로버(탐사차량)로 이뤄져 총 무게가 5톤에 이른다. 미국이 여러차례 나눠서 성공한 일을 중국이 한꺼번에 시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내년 2월 중 화성 궤도에 도착한다. 궤도선은 화성 고도 265km에서 1만 2000km 사이를 오가는 극타원궤도를 돌며 1년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착륙선과 로버는 텐원

1호가 화성에 도착한 후 2~3개월 후 화성 표면에 착륙을 시도한다.

착륙 예정지는 화성 북부의 유토피아 평원이다. 지름 3300km의 유토피아 평원은 많은 양의 얼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태양전지판을 장착한 로버는 240kg 무게로 약 90일간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됐다. 착륙선과 로버는 화성의 토양과 지질 구조, 대기, 물에 대한 과학 조사를 진행한다.

텐원은 '하늘에 묻는다'라는 뜻으로 중국 전국시대 초나라 시인 굴원의 시 제목에서 이름을 따다. 우주 탐사 등 과학적 진리를 쫓는 일은 멀고도 험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중국은 2016년 지구와 달 너머의 행성을 탐사한다는 계획을 처음 발표하고 이후 화성 탐사선을 준비해 왔다.

이번 시도가 성공하면 중국은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번째 화성 착륙 국가가 된다. 중국과학원 국가 우주과학센터 연구팀은 이달 13일 국제학술지 '네이처 천문학'에 쓴 기고문에서 "이런 방식의 행성 탐사는 처음"이라며 "성공할 경우 이는 엄청난 기술 혁신을 뜻한다"고 밝혔다.

[이현승 기자 nalhs@chosunbiz.com]

[네이버 메인에서 조선비즈 받아보기]

[조선비즈 바로가기]

chosunbiz.com

---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366&aid=0000559304>

---